

조선대·순천대 혁신지원사업 '기사회생'

교육부 '역량강화형' 선정...조선간호대·한영대도 3년간 정원 감축·구조조정 상당한 과제도 떠안아

조선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중 '역량강화형(II유형)' 지원대상으로 포함됐다. 전문대 중에서는 조선간호대, 한영대가 명단에 들었다.

앞으로 정원을 줄이는 등 강도높은 자구 노력을 해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를 떠안은 이들 대학은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 정원 10%를 감축해야 하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바 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조선대 등 전국 22개 대학·전문대를 선정, 12곳의 대학에는 올해 총 276억원(학교당 평균 23억원), 10곳의 전문대에는 총 130억원(학교당 평균 1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번 평가엔 4년제 27곳, 전문대 29곳이 참여한 자존심을 건 경쟁을 펼쳤다. 평가를 담당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각 대학이 제출한 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토대로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진행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기존 교육부의 대학자율역량강화(ACE+),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대학인문역량강화(CORE), 대학특성화(CK),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등 5개 지원사업을 모두 통합한 것이다.

특정 목적에만 쓸 수 있었던 이전과는 달리 별다른 사용처 제약 없이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혁신지원사업은 자율협약형 지원(I유형)과 역량강화형 지원(II유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선정된 '역량강화형'은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기본역량이 다소 미흡해 '역량강화대학'으로 평가된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선정된 학교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정원감축 권고량은 4년제 2천200여명, 전문대 800여명 등 총 3천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6월 초에는 선정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1년까지 3년간 줄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내년 입시부터 정원 감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들이 스스로 제시한 혁신전략을 바탕으로 기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꿈·희망 심어주는 '진로체험' 2일 오전 광주 북구청에서 열린 '청소년 진로체험'에 참여한 용두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양한 민원업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운영된 진로체험은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직종의 정보탐색·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근기자

오늘의 날씨

▶별례 지역

날씨

최저/최고/구름

☀ 해돋이 05:40/해질 19:19

🌙 달돋이 04:57/달질 17:37

인천 11/21

서울 11/25

대전 8/27

전주 9/27

목포 10/23

홍산도 12/20

춘천 7/27

강릉 12/23

대진 8/27

광주 9/27

여수 13/23

제주 12/20

부산 14/23

독도 13/15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40

의류시 마스크 필수

👉 빨래 80

밀린 빨래 하세요

👉 세차 90

새봄계 단장해 보세요

👉 운동 40

실내운동으로 만족하세요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0-0	목포	01:10	06:32
목포	0-0	목포	13:23	18:47
순천	0-0	여수	08:19	02:03
여수	0-0	여수	20:37	14:20

서해 남부 (풍향/파고)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서북-서/0.5-1.0m 면바다 서북-서/0.5-1.5m	오전	앞바다 서북-서/0.5-1.0m 면바다 서북-서/0.5-1.5m
오후	앞바다 서북-서/0.5-0.5m 면바다 서북-서/0.5-1.0m	오후	앞바다 남서-서/0.5-0.5m 면바다 북-북동/0.5-1.0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5월 4/토	(12/27) ☀ (13/26) ☀ (14/26) ☀ (11/27) ☀ (12/28) ☀ (15/23) ☀					
5/일	(13/25) ☁ (13/23) ☁ (16/24) ☁ (12/24) ☁ (14/25) ☀ (15/22) ☀					
6/월	(12/23) ☀ (11/21) ☀ (10/20) ☀ (11/21) ☀ (13/21) ☀ (15/22) ☀					

▶날씨안내 : 국민뉴스131

광주매일신문 기사 제보 jebo@kjdaily.com

전남 일선학교 기숙사·합숙소 전수조사

생활교육 실태 점검... '기절놀이' 등 폭력행위 예방 활동도

전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기숙사와 운동부 합숙소 생활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숙사 내에서 이뤄지는 학생들의 불관한 관계 형성과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교육적 논란이 된 완도 모 고등학교 기숙사의 일명 '기절놀이' 등 폭력행위와 위험한 놀이예행을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기숙사 또는 운동부 합숙소를 운영 중인 중학교 9개교와 일반고 89개교, 특성화고 41개교와 함께 31개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자체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는 별도로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를 주축으로 학교특성별 기숙사 담당부서인 교육과정과, 미래인재과, 체육건강과와 긴밀히 협조해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현장방문형 조사가 함께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숙사 내에 잠재돼 있는 학교폭력, 학생 간 갈등 상태를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숙사 생활교육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기숙사가 학생들의 편안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하고, 기숙사 생활교육을 변화시켜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기숙사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기자

"대학명 적힌 교생 명찰은 학벌주의 조장"

교육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일선 학교에 배치된 교육실습생(교생)들이 출신 대학명이 적힌 명찰을 차는 관행은 학벌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초·중·고 교육실습에서 교생에게 출신 대학·학과가 적힌 명찰을 차는 실태를 시정하도록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명찰은 각 대학에서 제작한 것으로 실습하는 동안 일상적으로 패용한다. 대학에서는 모교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강조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고 시

민모임은 주장했다.

대학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단과대까지 표기해 사범대·비사범대 소속인지가 드러나면서 교생들의 이미지와 편견으로 제단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출신대학을 표기해 불편하다거나 고정관념이 작용할 여지가 있어 비교육적이라는 반응도 현장에서는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출신 학교와 학과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고 출신 학교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은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할 수도 있다"며 "학력이나 학벌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관행이 사라질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광주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도시"

"광주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도시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51)씨는 2일 광주 서구청의 초청을 받아 '4·16 그리고 생명과 인권'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광주에 정착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특강에서 "안산에서 팽목까지 행진할 때 여러 도시를 들렀지만, 광주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나와 제일 뜨겁게 응원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광주 상주모임 관계자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이 끝나면 광주에 와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며 "실제 광주에서 생활해보니 마음이 너무 좋다"고 덧붙혔다.

그는 시민과 학생이 가지고 있거나 가게 곳곳에 걸려있는 노란 리본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른 사람들이 세월호가 지겹다고 말하며 그만하라고 할 때 노란 리본을 보면

세월호 유민 아빠 유족 김영오씨 서구 특강서 광주정착 소회 밝혀



강연하는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아직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힘이 난다"고 털어놓았다.

강연 중간에 세월호 참사 전후로 유민이와 얽힌 사연이 나오자 청중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는 또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특조위 2기가 활동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1기 특조위가 조사한 내용을 재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 특별 수사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은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 세대에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필요하다"며 "다시는 우리 가족처럼 길에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GIST 3-4일 무박 일정으로 AI&IoT 해커톤 대회 개최

GIST(광주과학기술원)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일반인 창업 프로그램 행사인 'AI&IoT 해커톤'을 3일부터 4일에 걸쳐 무박으로 개최한다.

이 행사는 GIST Creative Space G에서 열리며, GIST가 주최하고 GIST 창업진흥센터와 오픈랩 주식회사, 광주대학교가 공동 주관해 진행한다.

GIST는 앞서 대회를 전국적으로 홍보한 결과, 지역별로 수도권 3팀, 전라권 6팀, 충청권 1팀, 경강권 4팀, 강원권 1팀 등 총 15팀이 신청했으며, 이후 사전 아이디어 노트를 접수받아 10개의 팀(총원 40명내외)을 선발했다.

입상 팀에게는 아이디어 고도화와 전국대회 해커톤 참가를 지원하고, GIST 과학기술융합연구단장상 및 창업진흥센터장상 등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기성근 GIST 창업진흥센터장은 "GIST가 4차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특색 있는 창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우수 창업팀을 발굴 및 지원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종민기자

동구, 5·18 39주년 인문학 강좌 마련

5월 한 달 구청 대회실서

광주 동구가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오월인문학 강좌 '서른아홉 번째 계절'을 개최한다.

5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구청 6층 대회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문학, 그림, 영화 등 문화예술을 통해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신을 계승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했다.

오는 8일 전진희 인권인문연구소장이 진행을 맡은 첫 번째 강의에서는 1980년 5월16일부터 열흘간의 기록을 담은 대하소설 '봄날'의 저자 임철우 작가가 출연해 본인의 작품을 통해 당시 5월의 현장을 생생히 증언한다.

15일 두 번째 강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이자 전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인 김종률 씨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오기까지의 제작과정과 예곡소

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2일 세 번째 강의에서는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대표가 '5·18과 세계화 미술'을 주제로 광주민주화운동을 담은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미술이라는 예술 장르에 담긴 저항정신에 대해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9일에는 시집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의 저자이자 회곡작가로도 활동 중인 광주 출신 김경주 작가와 전찬일 영화평론가가 함께 맡았다. 두 강사는 '택시운전사' 등 영화와 연극작품을 통해 재창조되고 있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오월인문학을 통해 광주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돌아보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어린이가 살기 좋은' 안전도시 만든다

북구, 4대 분야 20개 과제 본격 추진

광주 북구가 어린이와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나선다.

2일 북구에 따르면 어린이안전정책으로 ▲어린이 학부모 참여행진 ▲안전인프라 구축 ▲안전제도 개선 ▲안전문화 조성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

먼저, 북구는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명예기자단을 운영해 안전모니터링, 취재기사 작성, 아이디어 제시 등 어린이 눈높이로 본 안전에 관한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63%가 보행 중 발생하고 발생원인의 55%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감안, 북구 관내 대로변에 위치한 22개 초등학교 신

입성 2천75명에게 스쿨존 내 속도제한을 의미하는 '30'이 적힌 가방안전장갑을 배부해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지키고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북구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18개 교통섬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해 우천 또는 야간에 운전 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섬을 이용하는 어린이, 학부모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올해 유치원생, 초등학교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광주시 CCTV(폐쇄회로 TV)통합관제센터 견학을 통해 CCTV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환준기자

동강대, 푸른길서 건강운동법 재능기부

스피닝사이클 등 큰 호응

동강대학교가 광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운동법을 선보이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동강대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학과장 노재성)는 최근 광주시 동구 푸른길공원 일대에서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마켓'에 스피닝사이클 공연 및 체험캠프를 운영했다.

동강대는 동구가 주관한 이번 공연에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취업 동아리인 스피닝 사이클을 사랑하는 모임 학생 11명이 참여해 지역민들에게 스피닝사이클

를 무대를 펼치며 직접 타보는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또 20초 운동 10초 휴식을 반복하며 다양한 동작을 하는 '타바타' 운동 시범도 선보였다.

한편 동강대는 지난 2007년부터 스피닝사이클 팀을 운영하며 동구 충장축제, 장흥통합의학박람회 등 지역 행사와 빛공원 일대에서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마켓'에 스피닝사이클 공연 및 체험캠프를 운영했다.

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전국 전문대학 80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춘마라톤 시즌2' 프로그램에 광주지역 전문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뽑혔다. /김종민기자